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2년 7월 8일(금)
---(음력 6월 10일)---
Пятница
8 июля 2022г.
№ 26 (11993)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7월 8일, 러시아에서 가정, 사랑과 충실의 날을 기념한다.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친애하는 여러분!

'가정, 사랑과 충실의 날'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기념일은 진정한 국민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올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결정으로 기념일로서의 공식적인 지위를 얻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치를 더욱 더 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할린주는 온 가정들이 평안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주택 건설 속도를 높이고, 의료 서비스의 편리한 이용과, 질적 향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그 결과로 사회 지원을 보다 편리하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저소득층 가정은 특별한 돌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예로, 이 사업의 일환으로 '사할린 선행 카드' 기획을 실시했습니다. 이 기획은 각 가정의 구체적인 요구들을 종합적으로 취득하여 빠르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재교육과 채용을 도우며, 사할린의 기업들은 가정에서의 필수품 구매를 돕고 있습니다.

제가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세 자녀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네 손자의 할아버지로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가정이란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가정은 가장 힘든 순간에 안식과 희망의 버팀목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값으로 대신 치를 수 없을만큼 소중합니다. 여러분 모두 밝고 즐거운 시간을 누리시길 바라며 각 가정에, 서로 간의 상호이해와 사랑이 넘치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기쁜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6월 30일, 한국 영주귀국 지원 신청 마감

2021년 1월 1일부터 사할린동포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작년에 동포 334명이 영주귀국하였다. 올해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 신청접수는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올해 영주귀국 가능 대상 인원은 총 350명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총영사관 출장소(소장 박상태)에 따르면 2022년 6월 30일 현재 출장소를 통해 신규 영주귀국을 신청한 8세대와 기존에 영주귀국 하신 직계비속 신청자까지 192세대다. 러시아, 또는 CIS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중에 한국으로 영주귀국을 지원하는 사할린 동포 수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지금 검토중에 있으며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신청자 수가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작년보다 신청자 수가 적다는 것이다.

리마렌코 주지사, 극동 개발부 장관과 만나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알렉세이 체코코브 러시아 극동 개발부 장관과 실무 회담을 가졌다. 주요 안건은 사할린 국립 대학교의 발전이었다. 알레리 리마렌코는 알렉세이 체코코브에게 캠퍼스 건설을 위한 설계 문서가 현재 완성되었다고 보고했다.

또한 장관과 만난 전날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사할린국립대학교를 기반으로 지역내에 "사할린Tech" 과학 및 교육 컨소시엄 설립에 대한 협약이 체결됐다. 사할린국립대학교는 미래의 고용주들을 위한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그외 다른 현안으로 와니노 - 흄스크 간 제2 연락선 건설의 완료와 코르사코브 항구 현대화 등을 비롯하여 지역의 교통 접근성 문제가 논의되었다. 별도의 주제로 석유 및 가스 산업의 제재를 배경으로 한 일자리 보존과 사할린 산업발전 문제를 논의했다.

극동 개발부 장관은 사할린 주 지사와 극동개발부의 소셜네트워크에 지역 주민들이 제시하는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가졌다. 지역관리센터에 따르면 현재 도로 보수와 주택가 마당구역 보수에 관한 호소가 많이 접수된다고 한다. 알레리 리마렌코 지사는 "이 문제는 지역 당국의 지속적인 통제하에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신

트루트네브 부총리, 사할린주 방문

지난 7일(목)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 유리 트루트네브 부총리가 사할린을 방문했다. 사할린에 있는 이틀간에 그는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사할린 남쪽 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거지 사업추진 상황을 숙지하고 에너지(석유가스 분야), 관광 등 비롯 여러 차례의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방문 첫 날에 부총리는 여러 문제로 비판을 많이 했다고 전해졌다.

러시아, 코로나 제한 해제

러시아에서는 코로나 상황 개선을 배경으로 기존에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부과된 제한들이 7월 초부터 해제되고, 마스크 착용, 대규모 행사 개최, 급식 시설 내 제한 등이 취소되고 있다고 소비자 권리보호 감독청에서 전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권리보호 감독청은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될 경우 "제한조치를 재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염병 예방 대책은 코로나 사례를 적기에 발견하고 전염병 전파 과정을 감시하기 위한 조치도 유지되고 있다고 타스 통신사가 전했다. 사할린에서는 6월 초 거의 모든 규제가 해제되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학교 학생들에게 상과 장학금 수여

유즈노사할린스크 학교와 보충 교육기관 학생들의 졸업생 50여 명은 지난 학년도(2021-2022) 성과 결과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상금과 장학금을 받았다.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은 젊은이들의 지적, 창의적 잠재력을 지원하는 것이 시 행정의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재능 있는 학생들을 기리는 것은 2006년에 시작되어 좋은 전통이 되었다.

사할린, 러시아 스포츠 마스터(체육명인) 두명 더 배출돼

러시아 연방 체육부 장관 올레그 마티친은 "러시아의 스포츠 마스터"라는 스포츠 타이틀 수여에 관한 명령 제76-ng호에 서명했다. 이 명령에 따라 사할린에서 스포츠 마스터가 두명 더 배출되었다. 사할린주 동양 무술 올림픽 예비체육 학교 학생인 송 예브게니와 이용복에게 '스포츠 마스터'라는 칭호가 수여되었다. 이용복은 러시아 전체 주요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송 예브게니 선수는 핀란드 16-17세 청소년 가라데 유럽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2021년 8월)을 따내며 스포츠 마스터에 대한 기준을 충족시켰다.

이에 앞서 2022년에 사할린 선수 김 이고리(청각 장애인 스포츠), 율리아 자비알로와(크로스컨트리 스키), 블라디슬라브 라린(수영), 막심 콜로보브(스키 점프)에게도 러시아 스포츠 마스터 칭호가 수여됐다고 주 스포츠부의 홍보실이 전했다.

새고려신문

2022년 하반기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2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96루블리 92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수 있습니다.

(편집부)

사할린주 교통경찰을 단단하게 이끌어가는 남용식 대령

7월 3일은 러시아에서 기념하는 교통경찰의 날이다. 기념일 다음 날, 국가도로안전 검사청(교통 경찰) 사할린 관리국 남용식(러어명 이고리 블라디미로위츠, 1978년생) 국장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난 주 모스크바 출장을 다녀온 그는 빡빡한 일정에도 월요일, 본사 기자와의 만남을 잊지 않았다.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었다.

모스크바 출장은 연수 겸 세미나였다고 한다. 코로나 확산 때문에 3년만에 러시아의 모든 85연방주체를 대표하는 지역 교통경찰 국장들이 모스크바에 모인 자리였다.

«매칠 동안의 세미나는 정말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문제도 심의하고 살펴보고 여러 지역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좋았어요. 새 사람들과 인사도 하고 서로 일에 도움이 되는 기술, 방법 등도 나누기로 했습니다.»라고 남 국장이 말하였다.

코르사코브 출신인 그는 유즈노사할린스크 경제법률정보학 대학(전공 법률학)을 졸업한 후 2001년에 유즈노사할린스크 교통 순찰대에서 근무를 시작해 계속 교통 경찰에 종사해왔다. 2005년에 사할린주 교통경찰국으로 옮겨 여러 일을 해왔는데 2011년에 관리국 내 새로 생긴 사진비디오촬영부서에서 한 지도자로서 활동을 했다. 2018년에 사할린주 교통경찰국 부국장으로 승진하여, 2021년에 국장 대행하고 올해 3월에 국장으로 부임되었다. 현재 그의 계급은 경찰 대령이다.

그는 유즈노사할린스크 대학에서 학사 과정을 졸업했지만 진급하는 데에는 대학 4년제가 부족해 경찰에 근무하면서 바이칼경제법대학에서 1년간 원격으로 공부해 전문 졸업장을 받았다.

몇 줄 안 되는 문장에 그의 경력이 담겨 있다. 교육에 대한 의욕도 많고 새로운 지식을 잘



흡수하는 스타일이라 진급이 빨랐던 것 같다.

그는 교통경찰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 1초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한다. 다만 은퇴(경찰은 조기은퇴 체제가 있음)를 하려는 것은 사실이다. 때로는 너무 어려웠고 특히 내부에서 경찰로 혁신하는 기간동안 쉽지 않았다. 그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옳았다는 판단이지만 말이다.

업무량이 많을 뿐 아니라 언제든 사태가 터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는 경험이 쌓여 조직적인 문제는 잘 해결하는 데 반해 감정적으로 힘들 때가 있다. 이것이 업무를 시행하는 데에 가장 어려운 점이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신경써야 할 일들이 많아지는데, 이것을 심리적으로 이겨내야 한다.

그는 매일 아침 7.45분에 출근하고 퇴근 시간은 저녁 8시다. 좋지 않은 사건들은 주로 밤에 일어나기 때문에 남들보다 일찍 출근한다. 교통사건 뿐만 아니라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해 알아야 이날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사할린주의 교통경찰 지도자로서 그는 교통경찰에 일하는 530명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그의 사무실은 부서 책임자도 들어갈 수 있고 일반 경찰관도 찾아와 자기 고민을 토로할 수 있다. 국장이 되기 전 첫 관리직을 할 때부터 일해온 그만의 방식이다.

러시아 교통경찰의 공식명은 국가도로안전 검사청이니 무엇보다 도로에서 안전을 지키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 시 행정부와 질 좋고 안전한 도로에 대해 많이 협조하고 있다. 남 국장에 따르면 도로에 설치된 카메라(CC tv)도 안전 운전에도 도움이 된다. 최근 2년간에 사할린주에서 카메라 설치된 곳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앞으로 사진비디오촬영장치를 더 많이 설치돼야 한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경찰 지도자로서 그는 자랑할만 일이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점점 적어지는 가운데 2021년에 사할린주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65명이었다. 최근 20년 중에 가장 좋은 통계를 보여준다. 보통 매년 사할린 주에서는 교통사고로 거의 100명이 사망했다. 2020년 같은 경우 교통사고로 80명이 사망했다. 15명이 소중한 생을 잃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대통령 통제 하에 '안전하고 질 좋은 도로' 라는 국가프로그램이 실시되어 사할린 주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남 국장은 말한다.

남다른 책임감은 가정생활에서도 보여진다.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는 여자친구가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복무를 마치고 경찰에 들어갈 때 까지 그를 기다렸다. 안전한 자리를 잡은 후에 결혼을 하자는 약속을 지킨 것이다.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가족을 이끌어갈 수 있을 때 결혼해야 한다»고 그는 늘 생각해왔다. 자기 삶을 돌아보니, 두 아들의(18세, 12세) 아버지로서 그는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부모, 어른들에 대한 존경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친구가 많은 편이다. 어린시절 친구부터 학교 동창들, 사회 동료들 등 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국장이 되어서는 친구를 더 사귀지는 못했지만 친구를 잃지는 않았다고 한다. «새로 인사한 사람들이 생겼지만 새 친구는 없다»고 그는 말했다.

이 말을 들으니 우정에 대한 사람의 진지함을 엿볼 수 있었다.

남 국장은 더 나은 사회,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것이 삶의 변함 없는 목표라 했다.

그 또한 여느 사할린 사람들처럼 여유 시간이 생기면 야외에서 보내기 좋아한다. 특히 낚시를 하거나 조개 등을 채취하는 것을 즐긴다. 봄 바다를 좋아하고 바닷바람을 맞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무거운' 생각이 사라진다고 한다. 기분 전환으로는 최고의 방법이다.

전에는 스포츠도 많이 했었다. 대학 전까지는 태권도를 집중적으로 했고 사범 보조까지 했다. 축구에도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 요즘은 몸 관리를 하는 정도로만 운동을 한다.

교통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임무에 헌신하는 남용식 대령과 대화를 나눠보니 절로 존경이 생기고 그런 분이 우리 동포라는 게 뿌듯하게 느껴진다. 도전을 거부하지 않고 언제나 삶을 정면승부 해왔던 남용식 국장이 앞으로도 새 정상을 정복해 나가길 바란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사할린,

"우리는 러시아인이다" 전시회가 열린다

"우리는 러시아인이다. 러시아 민족의 지역 그룹"이란 전시회를 러시아 민속 박물관(상트페테르부르크)이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소개한다. 개막식은 7월 8일 16시에 "사할린 섬" 체호프 책 박물관에서 개최한다. 사할린 주민들과 방문객들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에 걸쳐 러시아 민족 현지 그룹들의 문화 전통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 전시회에서는 러시아의 유럽쪽, 남과 동부 시베리아 지방에 거주하는 러시아민족의 여러 지역그룹이 사용하는 의상과 개별 품목인 의류, 가정 직물 및 기구, 가정용 도구와 놀이 활동을 위한 속성, 여성의 수예품과 남성들의 공예품, 종교 물품 등이 소개된다. 20세기 초 사진들은 러시아 사람들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각각의 그룹 독창성에 대한 생각을 보완할 것이다.

전시회에서 "우리는 러시아인이다. 러시아 민족의 현지 그룹"은 7월 8일부터 9월 4일까지 체호프 책 박물관에서 진행된다.

Выставка «Мы русские» откроется на Сахалине

Выставку «Мы русские. Локальные группы русского народа» представи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Российский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й музей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Торжественное открытие состоится 8 июля в 16:00 в музее книги А. П.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Сахалинцам и гостям города представи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культурными традициями локальных групп рус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конца XIX – первой половины XX века.

На выставке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костюмы и отдельные предметы одежды, домашний текстиль и утварь, хозяйственные инструменты и атрибуты игр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бразцы женского рукоделия и мужского ремесла, предметы культа разных

групп русского народа Европейской России, Южной и Восточной Сибири. Фотографии начала XX века дополнят представление о своеобразии каждой из групп, являющихся неотъемлемой частью русского народа.

Выставка «Мы русские. Локальные группы русского народа»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в музее книги Чехова с 8 июля по 4 сентября.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포토펙스트" 개최

청년 주도 센터에서 "포토펙스트"에 사람들을 초대한다.

"포토펙스트"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청년 주도 센터에서 전통적으로 치러지고 있는 경연대회다. 이 대회는 사진 콘테스트와 도시 오리엔테이션을 결합한다. 대회는 7월 8일, 9일, 10일 총 3일간 진행된다.

7월 8일 13시에는 소셜 네트워크 "브콘택테"의 청년 주도 센터 페이지를 통해 크로스의 주제를 생방송으로 발표될 것이다. 생방송 후 참가자들은 바로 과제를 진행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과제에 주어진 주제에 맞는 장면을 모두 촬영할 수 있다. 주제는 모두 5개인데 각 주제에 따른 사진을 한 장씩만 골라 총 5장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팀 구성원은 사진의 모델이 될 수 없다.

촬영물 접수는 7월 10일 12시에 "마야크(등대)" 예술 관저에서 진행된다.

"포토펙스트" 경연대회의 결과로 모든 과제의 총점수에 따라 1,2,3위 수상자가 정해진다.

이번에는 주최 측에서 별도의 부문으로 "아카이브의 사진"을 준비했는데, 원하는 참가자들만 이 단계에 참여할 수 있다. 출품작은 심사위원단이 심사한다. 심사위원회는 러시아 사진작가 연맹 회원들과 도시 주요 사진작가들로 편성되었다. 가장 흥미로운 사진들은 유즈노사할린스크 140주년에 관한 기념 앨범 혹은 전시회에 포함될 것이다.

주최측에 따르면 14세부터 35세 사이의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 누구나 "포토펙스트"에 참가할 수 있다. 개인 또는 2

명에서 5명까지 한 팀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йдет "Фотофест"

Центр молодёжных инициатив зовёт горожан на "Фотофест".

"Фотофест" — это традиционное соревнование ЦМ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ля творческой молодёжи. Оно совмещает в себе фотоконкурс и городское ориентирование. Соревнование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три дня — 8, 9 и 10 июля.

8 июля в 13:00 темы кроссов будут озвучены в прямом эфире на странице МАУ "ЦМИ" в социальной сети "ВКонтакте". Сразу после этого участники могут приступать к выполнению заданий. Фотографировать разрешается всё, что, на взгляд конкурсантов, соответствует заданию. Всего необходимо сдать пять фотокарточек — по одной на каждую тему. Участники команды не могут являться моделями на фотографии.

Приём отснятого материала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в арт-резиденции "Маяк" 10 июля в 12:00.

По итогам "Фотофеста" будут определены три призовых места по общему количеству баллов за все задания.

В этот раз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дготовили отдельную номинацию "Архивные фото", в этом этапе можно участвовать по желанию. Оцениваться работы будут членами жюри. В его состав вошли члены Союза фотографов России и ведущие фотографы города. Самые интересные фотоработы смогут попасть в альбом или на выставку, которые посвящены 140-летию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пробовать свои силы в "Фотофесте" могут южносахалинцы в возрасте от 14 до 35 лет. Участвовать можно как индивидуально, так и командой от 2 до 5 человек.

사할린 주민, 토찰 축제에 참가 초대

7월 23일- 24일 이틀간 포로나이스크에서 재능 있는 사할린 문화인들을 발견하고 홍보할 것이다. 이를 위해 포로나이스크 시에서 처음으로 '미르' 문화 레저 센터의 주최 아래 지방자치체간에 '오자레니예(토찰)' 축제가 열린다.

(8면에 계속)

<사할린주한인협회 소식>

<사할린 동포 특별법 개정을 위한 실무그룹 회의 진행>

지난 7월 1일(금) 사할린 한인 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주한인협회 산하 '사할린 동포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실무조직 그룹(담당 오진하 주한인협회 고문)의 모임이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이 발표하고 6월에 파비앙 살비올리는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 방지 특별보고관의 방한에 대해 알렸다. 그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된 한국 정부 부처 관계자와 면담을 하고 피해자·시민단체와 만났다.

정의기억연대 등 한국 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유엔 진실 정의 특별보고관 방한 대응 인권 시민사회모임'은 일본군 성노예제, 일제 강제 동원, 사할린 강제 동원, 제주 4·3 사건, 연혁당 재건위 사건 등 대표적 과거 사건들의 현황과 과제를 담은 보고서를 전하면서 사할린 한인 문제가 다시 언급되었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사할린 동포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생겼으나 사할린 현지 동포들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 특히 영주귀국을 못 하고 사망하는 부모들의 자녀들이 불만이 많다. 그래서 현재 영주귀국 자격이 없는 이들은 영주귀국 지원 허락을 요구하고 있다. 현 상황으로 볼 때 이와 관련된 특별법 수정이 시급한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실무그룹

이 추진한다.

현재 위와 같은 문제의 대상이 되는 2세들에 대한 정보를 한국에서 파악 중이고 사할린주 한인협회가 이를 돕고 있다고 회의에서 밝혔다.

그리고 실무그룹의 적극적 활동이 필요하다는 오진하 고문의 말에 회의 참석자들이 2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 모임을 하기로 했다.

사할린 한인 건강생활 지원센터, 건강 관리 프로그램 진행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사할린주 한인협회는 얼마 전에 한인 문화센터 내 1세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할린 건강생활 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운영하게 되었다.

지난 2일(토) 문화센터에서 모인 35명 정도의 어르신들은 내과 의사의 검진을 받고 치매 예방 과정과 치료를 위한 운동법을 익혀보고 맛있는 밥상도 대접 받았다고 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 측이 전했다.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 및 건강 관리 프로그램은 주한인 청년회(회장 이 세르게이)가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 진행이 있던 날 좋은 습관이 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어르신들은 유익하고 유쾌한 시간을 보내 아주 만족해 하셨다고 하였다. 사할린 건강생활 지원센터에서 1세 동포를 위한 여가 및 건강 관리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 모임은 7월 16일 있을 것이라고 주최 측이 전했다.

(배순신 본사 기자)

<사할린국립대, 한지 공예 체험 진행>

지난 7월 5일(화) 사할린국립대학교 어문·역사·동양학 대학(학장 임 엘비라)에서 한지 공예 활동 교실이 펼쳐졌다. 주최 측에 따르면 한지 공예품 만들기는 이번이 마스터 클래스로 3번째라고 한다. 특히 이번 활동 교실에는 한국에서 온 전문 강사로 김미경 선생님을 모셨다. 그녀는 한국에서 한지 공예 과정을 수료했다.

이날 마스터클래스 참가자들은 새로운 기법으로 한지를 탈색하여 공예품을 만드는 과정을 배웠고 한지 공예의 멋스러움을 한층 더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한지를 붙이는 과정만 체험하다가 탈색이라는 기법을 배우면서 더 재미있어하고 즐거워하였다.

사할린국립대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한민족 한지 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만들 계획이다.

(야키모바 엘리자베타 견습 기자)
(사진 어문·역사·동양학 대학에서 제공)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꽃 /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오래된 레코드 판. 김춘수 시인의 '꽃'을 음미할 때면 어쩐지 꼭 아주 오래된 레코드 LP 판과 마주한 기분입니다. 한 바퀴 두 바퀴 비늘 위를 돌며 스키는 잡음처럼 어쩐지 먼지가 이는 느낌이 드네요. 비닐이 뜯긴 채, 이제는 참 너무 오래된 나머지 자주 찾지 않을 그런 시. 하지만 1백년이 지나 미래의 그 누군가 역시 이 시를 읽고 잠시 멈춰서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시입니다. 1백년이 지나도 누군가는 이 시를 손수 적어 사랑을 고백하겠지요.

안톤 체홉은 '1백년 뒤'라는 대사를 종종 사용했습니다. <세자매>의 이리나, 마샤, 올가를 보면 늘 모스크바로 떠나길 꿈꾸잖아요. 현실의 삶보다 유년시절 잠시 누렸던 그 화려했던 일상으로 되돌아가고 싶었던 거죠.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렸을 땐 저 역시 뭐든 그리 어렵지 않아 보였어요. 이제는 압니다. 잘 알죠. 세상만사 쉬운 일 별로 없다는 것 정도는.

아들 녀석이 요즘 들어 제가 수집했던 오래된 LP 판에 관심을 둡니다. 로큰롤, 프로그레시브 락에 빠져거든요. 늦은 밤 '락의 역사'에 대해 어쭙잡은 지식으로 아들에게 무언가를 들려줍니다. 초롱초롱한 눈. 제 작품 중 정말이지 각색이 필요 없는 유일한 최고의 작품이 있다면 물론 '아들'이겠죠. 누군가와 사랑의 떠올리자면 저는 연애 그리고 결혼 이렇게 좁은 시선으로 살아온 한량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케케묵은 먼지들이 제 피부에 덮고 있네요. 저는 여전히 뺨 글뺨글 돌고 있는 모습이지만, 다행히 이런저런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일어 제게 뭔가를 물어보는 아들 녀석이 요새만큼 그렇게 고마울 때가 없습니다. 제가 감히 아들녀석에게 있어 어떤 색을 발휘하는 '꽃'으로 거듭날 수 있을 지 장담할 수 없는 오늘. 늦은 밤 새삼 세상만사 고마운 분들을 헤아려봅니다. 체홉, 도스토예프스키, 푸시킨 말고 이틀레텐 '마샤. 이리나, 올가 말고 '마샤.'

서울에서 허진원 작가

<미니인터뷰>

가족은 무엇인가요?

가정의 날 기념일 유래를 말하자면 13세기부터 전해져 내려와 무롬 출신의 표트르 공후와 그의 아내 페브로니아라는 부부에 의해 생겨났다. 정교회에는 이 부부를 성도로 모신다. 사랑으로 결혼해 가정생활을 중시한 부부로서 '부부간의 믿음과 이상적인 가정의 표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전설에 따르면 부부는 1228년 6월 25일(현 7월 8일) 같은 날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들의 시신은 따로 다른 곳에 묻혔다가 훗날 같은 관에 안치되었는데 이를 기적이라고 여겼다.

7월 8일은 러시아에서 가정, 사랑과 충실의 날을 기념한다. 올해부터는 이 날을 공식 기념일로 대통령령으로 지정했다.

가족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치이다.

가정, 사랑과 충실의 날을 맞아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족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주제로 질문을 해보았다.

주 엘리자베타(12살, 학생):

저에게 가족은 나의 지원자이며, 가족 모임의 따뜻함이에요. 가족은 저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줘요.

저희 가족은 3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가족이에요. 우리 언니는 다른 도시에 살고 있으며 저는 어머니,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저는 다같이 더 자주 만나고 싶어요.

제가 힘들거나 슬플 때, 저는 항상 할머니, 어머니, 언니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해요.

박 엘레나(23세, 대학원생):

가족은 제 인생의 중요한 의미를 줘요. 저를 가르치고 도와주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죠. 가족은 항상 저를 기다려주므로,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외동딸이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사촌들이 있는데 다리야, 올가, 크세니아, 그리고 예카테리나예요. 저희는 거의 비슷한 나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른 도시에 살고 있어서 서로 자주 만나지 못해요. 우리는 가끔 만나게 되면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카페도 자주 가요. 어린 시절부터 저희는 서로 친구처럼 지내며 항상 응원하고 도와줘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은 청년들이 부모님을 돌보고 도와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가족은 저에게 힘과 영감이 동기부여가 되는 원천이에요.

성 이고리(43세, 교사):

한편으로 가족은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키워준 사람들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키우고 가르치고 있는 제 아이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매우 흥미로워요.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가족은 나에게 인생에 대한 많은 교훈을 줍니다. 제가 이미 젊지 않지만 계속 뭔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 20대 자녀들에게서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최근에는 틱톡을 다운 받고 그것을 연구중입니다...

박 나탈리아(69세, 연금자):

저에게는 딸들과 손주들이 나의 가족이에요. 우선 이들을 제가 책임져야 할 가족들이죠. 딸들은 이미 다 키웠고, 지금은 손주들을 키우고 있어요. 물론 때로는 어렵고 다름과 갈등도 생길 수 있고, 항상 서로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서로가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봅니다.

엘레나(22세, 학생)

가족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죠. 존재만으로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가족을 위해 용감한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마르가리타(41세, 육아휴직 중)

가족은 우리의 닻이고 지지대입니다. 가족은 항상 돌아가고 싶은 곳입니다. 가족은 사랑과 응원입니다. 1년 전에 제가 셋째를 출산했는데 나이가 많아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지인들 다수가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에너지가 넘치는 우리 막내딸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벌써 1.4살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있으면 혼자가 아니므로 자신의 소중함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족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안드레예바 안나(26세, 건축 전문가)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걱정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서로에게 좋은 일만 생기길 바라고 건강을 챙겨주며 모든 불만과 노여움이 있어도 서로 용서합니다. 가족은 어려운 순간에 서로를 돕고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저는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티아나(41세, 회사 과장):

가족은 사랑, 보살핌, 인내, 책임, 존경, 깨끗함입니다. 가족은 나의 지지대이며 믿음과 도움을 줍니다.

인 이고리(40세, 가구공장 직원):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늦게 결혼한 저에게 가족은 전부입니다. 지금 든든한 양아들과 장남꾸러기 막내아들, 그리고 귀여운 딸과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 행복한 삶을 제대로 누리고 있어요. 제 남동생도 역시 아이가 셋인데 가족끼리 만나면 흥이 넘칩니다. 우리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지만 막내 이모와 이모부가 부모님 대신 잘 해주시고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많은 사랑을 주십니다.

(사할린국립대 학생인 위로비와와 다리야, 야키모바 엘리자베타 견습 기자)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Здоровье и досуг пожилых людей

2 июля 2022 года в "Центре поддержки жизни и здоровья" при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прошло первое мероприятие, направленное на поддержание здоровья и досуга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Для бабушек и дедушек был проведен цикл мероприятий по предотвращению развития болезни Альцгеймера, ЛФК, осмотр терапевта, сообщает Телеграмм-канал «Корейский Телеграф»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ожилых людей также потчевали вкусным обедом, они прекрасно провели время, общаясь между собой.

Надо отметить, что работой Центра поддержки жизни и здоровья занимается Молодежная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СахГУ прошёл мастер-класс по "ханджи"

6 июля в Институте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прошёл мастер-класс, посвящённый корейской традиционной бумаге «ханджи». Его провела Ким Мигён, специалист по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му искусству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астер-класс, на котором студенты ИФИИВ смогли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корейской традиционной бумагой «ханджи», далеко не первый. В этом году это уже третье занятие, посвящённое данной теме. Ребята регулярно участвуют в мастер-классах, на которых знакомятся с различными видами корейского 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В этот раз участники смогли еще больше узнать о том, как правильно создавать шкатулки и органайзеры, а также их удивили новой техникой осветления бумаги «ханджи тхальсэк», которая позволила оживить изображённые на изделиях лепестки и листья.

— Со стороны процесс изготовления кажется простым, но правильно выгнать воздух, особенно из объёмных элементов оказалось не так просто, — поделилась одна из участниц мастер-класса. — Однако, мы совсем не устали. Спасибо преподавателям за организацию подобных уроков!

Студенты поделились, что с нетерпением ожидают новых мастер-классов, а также ждут будущих студентов-первокурсников ИФИИВ, чтобы поделиться с ними знаниями о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и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м искусстве.

(Елизавета Якимова, студентка СахГУ)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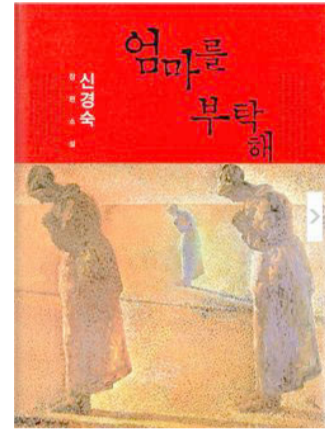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С ЗАБОТОЮ О МАМЕ О книге современной корейской писательницы

Писательница из Южной Кореи Син Кёнсук (신경숙, род. 1963) хорошо известна и у себя на родине и за ее пределами как прозаик. В 2012 году в переводе Анны Прохоровой на русский языке была издана книга «Пожалуйста, позаботься о маме» ("엄마를 부탁해", 2008), а в 2022 году в России появился еще один перевод этого же произведения, звучащего как «Прошу, найди маму» в версии Татьяны Залесской. Герои Син Кёнсук едят кимчхи и манты, носят чогори и играют в ют-нори. Эти и другие знакомые многим сахалинцам реалии просматриваются сквозь всё повествование, основанное на пропавшей пожилой женщины в сеульском метро и осознании младшей дочерью героини того места, которое исчезнувшая мама занимала в семье.

Интересно, что первая встреча русских читателей с книгами корейской писательницы состоялась благодаря кандидату филологических наук Ли Сан Юн (род. 1959). В 2008 году Ли Сан Юн защитила диссертацию, основным материалом которой стала женская проза XX века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 числе таких корейских писательниц, как Пак Вансо, Ын Хигён, Ли Сан Юн рассматривала и произведения Син Кёнсук.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история знакомства русских читателей с книгами Син Кёнсук начинается с переведенного Ли Сан Юн рассказа «Там, где стояла фисгармония» ("풍금문이 있던 자리", 1992). Эта история была опубликована в третьем выпуске журнала «Нева» в 2010 году. Весь рассказ выстраивается в форме письма, при котором влюбленная в женатого мужчину автор повествования вспо-



минает свои детские годы и определяется с выбором в настоящем.

Сегодня Ли Сан Юн в должности доцента преподает в Россий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педагогиче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им. А.И. Герцена. А родилась переводчица в городе Углегорск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счету Ли Сан Юн переводы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и произведений других корейских авторов: «Вегетарианка» ("채식주의자") и «Человеческие поступки» ("소년이 온다") Хан Ган, «Планировщики» ("설계자들") Ким Онсу и др.

Новые книги Син Кёнсук продолжают привлекать внимание переводчиков из России. В 2020 году по-русски изданы «Истории, рассказанные на Луне» ("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2013) в переводе Чун Ин Сун и Инны Ковригиной. Кроме того, самые известн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корейской писательницы имеют уже и звучащие по-русски аудиоверсии.

Книга Син Кёнсук «Пожалуйста, позаботься о маме» по-прежнему вызывает интерес у читателей. История о потерявшейся маме опубликована на нескольких языках (более чем в двадцати странах), а лежащая в основе заголовка книги



глагольная форма "부탁해" означает просьбу, поручение.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это же слово использовано и в названии появившегося в апреле в Корею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фильма «Позаботься о маме» ("말임씨를 부탁해", 2022). Кинособытия режиссера Пак Кёнмок (박경목) происходят в городе Тэгу, где живет нуждающаяся в физической и нравственной опеке 85-летняя женщина. Пожилая госпожа Маль Им (ее имя звучит в корейском названии фильма) в лице своей помощницы по дому обретает очень близкого человека. В это время сын главной героини живет в Сеуле, полностью посвящая себя работе, а не душевным заботам о матери.

Знакомая с произведениями Син Кёнсук и других авторов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овременные читатели не только открывают для себя традиции другого народа, но и понимают важность общечеловеческих ценностей, при которых забота о пожилом поколении становится одной из главных.

Елена Иконникова,
профессор СахГУ

Мемори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имени Хон Бом До построят в этом году

29 июня в Корейском доме прошла встреча руководства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Министерства патриотов и ветеранов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едметом разговора стала инициатива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по возведению в Кызылорде, на месте, где был захоронен Хон Бом До, 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имени великого полководца – борца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Президент АКК Сергей Огай, приветствуя гостей, выразил благодарность правительству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за проект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на месте, где был захоронен генерал Хон Бом До в Кызылорде. В свою очередь, И Мун Ён, начальник департамента по обслуживанию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антеона «Хёнчун», где захоронены все герои Кореи, в том числе покоится и репатриированный из Казахстана прах Хон Бом До, отметила, что перенос останков великого генерала – очень важное событие. Южная Корея стремится ответить на такой благородный жест казахстанской стороны и инициировала проект по возведению 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в Кызылорде. Также планируется установка мемориальных табличек на улице имени Хон Бом До. Министерством патриотов и ветеранов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эти цели уже выделено порядка полумиллиона долларов США. Как отметила представитель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ведомства, проект планируется завершить уже к концу этого года.

Также в ходе беседы Сергей Огай отметил возросший интерес со стороны казахста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 истории своих предков, среди которых немало и тех, кто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оссии сражался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Он даже привёл пример своего прадедушки, который сражался с японскими оккупантами, но сведений о нём, к сожалению, никаких не осталось. В этом вопросе АКК и Министерство патриотов и ветеранов Южной Кореи могли бы плодотворно сотрудничат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инистерства с энтузиазмом приняли данное предложение, отметив его актуальность и перспективность.

После встречи с руководством АКК сотрудники министерства направились в Кызылорду, где обсудили организационные вопросы строительства 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с областным акимом и местным корейским этнокультурным объединением. Реализация проекта начнется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Александр ХАН
(Источник: Koreans.kz)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Спикеро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К избран Ким Чжин Пхё

4 июля политические партии проголосовали за избрание депутата от оппозиционн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Ким Чжин Пхё спикеро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Он будет возглавлять парламент 21-го созыва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его работы до мая 2024 года. Из-за разногласий по поводу назначения спикера и глав основных парламентских комитетов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фактически бездействовало более месяца. Ким Чжин Пхё — опытный политик, депутат парламента пяти созывов.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принадлежат 170 из 299-ти парламентских мест. Партия, которой принадлежит большинство мест, обычно выдвигает на должность спикера свое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резидент РК призвал активизироваться в решении проблем КНДР

1 июля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вернулся на родину по завершении пятидневной поездки в Мадрид, где он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саммите НАТО. В ходе двусторонних и многосторонних встреч он сосредоточил внимание на вопросах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ситу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Так, на переговорах с лидерами США и Японии, Юн Сок Ёль заострил внимание на восстановлении трёх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противостоянии ядерной и ракетной угрозам Пхеньяна. В ходе встречи не затрагивались анти-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санкции. Между тем, администрация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езидента готова расширить санкции против отдельных физических лиц и учреждений КНДР. Обсуждался также план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я РК и США недружественным действиям со стороны Севера. В своём выступлении на саммите НАТО Юн Сок Ёль призвал мировое сообщество уделить больше внимания проблеме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Он выразил готовность к тесн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со странами НАТО, подчёркнув, что только единство мирового сообщества является гарантией мира и свободы.

Пхеньян: Листовки с Юга - источник коронавируса

1 июл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СМИ сообщили о результатах расследования об источник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а. Согласно представленным данным, первые заражённые были зафиксированы на межкорейской границе, в деревне Ипхори уезда Кымган-гун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до в начале апреля. Сообщается, что военнослужащий и воспитанник детского сада контактировали с «необычным предметом». После этого карантинные власти дали указание с крайней осторожностью относиться к предметам, попадающим на территорию страны на воздушных шарах в приграничных районах. Фактически Север указал, что коронавирус попал в КНДР через воздушные шары, на которых не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Юга отправляют агитационные листовки и другие предметы. В течение недели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регистрируется менее 10 тыс. новых случаев «новой лихорадки». 99,8% заражённых полностью выздоровели.

В РК создан орган по проблемам жертв трудовой мобилизации

В РК создан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частный консультативный совет по решению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го спора с Японией о компенсациях жертвам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трудовой мобилизации во врем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Его первое заседание состоялось 4 июля под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м зам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Чо Хён Дона. В состав совета входя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эксперты по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праву, жертвы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трудовой мобилизации и члены их семей. В отдельных постановлениях в октябре и ноябре 2018 года Верховный суд РК обязал компании Nippon Steel и Mitsubishi Heavy Industries выплатить компенсации корейским жертвам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трудовой мобилизации во время колониального правления Японии в Корее. Однако компании отказались от выплат, утверждая, что все проблемы репараций были урегулированы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соглашением 1965 года о нормализации двусторонних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Корейские жертвы подали иски об аресте активов японских фирм, 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суды удовлетворили их просьбы. Однако процесс ликвидации активов не начался, так как компании подали апелляции.

Bloomberg: Корейская вона ослабла

На фоне резкого повышения базовой процентной ставки ФРС США во втором квартале этого года наблюдается самое быстрое после валютного кризиса 1997 года ослабление валюты стран Азии. По данным Bloomberg,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30 июня Азиатский индекс Bloomberg JP Morgan, отслеживающий котировки валют крупнейших стран Азии по отношению к доллару сократился на 4,5% по сравнению с концом марта, составив 102,53 пункта. Индекс учитывает валюты РК, Китая, Гонконга, Тайваня, Индии и крупнейших стран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за исключением Японии. Это самый низкий показатель с 1997 года, когда во время валютного кризиса в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индекс сокращался на 5,9% в третьем квартале и на 16,7% в четвёртом. В этот день курс южнокорейской воны превысил 1,300 вон за 1 доллар. В Bloomberg сообщается о том, что в этом месяце ослабление воны будет максимальным за последние 11 лет. (RKI)

Жизнь важнее идеологии

ДВЕ ВОЙНЫ

Основанный на реальных событиях фильм «Могадишо» рассказывает о том, как 30 лет назад сотрудникам посольств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удалось вместе бежать из охваченного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ой Сомали. Режиссёр Рю Сынван в свойственной ему гуманистической манере показывает, что перед стремлением выжить идеология и система оказываются бессильны.

«Нужно ли мне экранизировать и эту удивительную операцию?» Так отреагировал, присовокупив к ответу смайлик, режиссёр Рю Сынван на посланную ему статью об операции «Чудо», когда в августе этого года из Кабула, превратившегося в ад после вывода американских войск и захвата города талибам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оенные вывезли оттуда всех афганских гражданских лиц, сотрудничавших с корейски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а также их семьи.

Наблюдая за ходом этой операции, я, естественно, вспомнил о фильме Рю Сынвана «Могадишо» (2021 г.). Картина вышла в конце июля, незадолго до падения Кабула, и, несмотря на ограничения, вызванные пандемией, всего за месяц привлекла в кинотеатры 3 млн зрителей.

СУДЬБОНОСНАЯ ВСТРЕЧА

Сюжет фильма «Могадишо» основан на реальной истории, которая больше похожа на кинематографический вымысел. 30 декабря 1990 года в Могадишо, столице Сомали, демонстрации против затянувшейся диктатуры генерала Сиада Барре вызвали госпереворот и переросли в гражданскую войну. И тогда сотрудники посольств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обычное время занятые взаимной критикой и интригами, объединившись, сумели вместе вырваться из охваченного хаосом города.

Почему же режиссёр Рю решил экранизировать это событие, ставшее самым драматичным моментом в истории южнокорейской дипломатии? Вероятно, в этой истории, когда дипломаты противостоящих Юга и Севера, находясь в третьей стране, на далёком африканском континенте, балансируя на грани жизни и смерти, боролись бок о бок за то, чтобы просто выжить, его тронуло нечто большее, чем просто захватывающий сюжет.

Рю услышал об этом эпизоде в Сомали от коллеги. Причём вместе с новостью о том, что его готовится экранизировать студия Dexter Studios, снявшая «С богами: Два мира» (2017 г.). Спустя два года Dexter Studios предложила Рю стать режиссёром нового проекта.

— Мне было любопытно, что там случилось на самом деле, поэтому я поискал связанные с этим материалы в прессе, и оказалось, что это очень драматическая история, — говорит Рю. — И я подумал, что было бы здорово, если бы кто-нибудь, неважно кто, снял об этом хороший фильм.

Больше всего Рю поразило то, что вместе бежавшие дипломаты Юга и Севера были не спецназовцами или разведчиками, а обычными гражданскими.

— Саспенс, который возникает, когда обычные люди оказываются в драмат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был довольно интересным, и я подумал, что можно будет попробовать новый подход, отличающийся от моих предыдущих работ.

Рю собрал информацию о техсобытиях и реконструировал их в виде фильма.

В РК пройдут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стковидного синдрома

В РК в течение трёх лет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исследования долгосрочных последствий постковидного синдрома, в которых примут участие 10 тысяч человек. Как сообщили в Институте пробле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ри Корейском управлении по контролю и профилактике заболеваний, исследования начнутся в конце июля. Их основная цель — определить факторы риска, которые приводят к неблагоприятным последствиям для организма. На основе выводов учёных будет разработано руководство по более эффективному лечению инфекцион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По данным органов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К и Всемир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долгосрочные последствия коронавируса, которые часто называют «длительным COVID», относятся к побочным эффектам, продолжающимся более двух месяцев после выявления первоначального заболевания в виде усталости, одышки, потери обоняния и многих других. Во всём мире был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более двухсот симптомов. Около 20% пациентов с COVID-19 испытывали их долгое время. KBS World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Реклам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2022 г. — **96 руб. 92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78 спортсменов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первенств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национальным видам спорта среди КМНС

Соревнования среди детей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прошли в Поронайске. В спортивной программе, рассчитанной на четыре дня,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хинского,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го, Ногликского, Тымовского, Смирновского, Поронайского районо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 также сборной Камчатского края, которая в этом году впервые присоединилась к сахалинскому первенству.

– Развива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между регионами, мы расширили географию наших участников. Это очень важно для обмена опытом и сохранения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й спортивной истории, – отметила советник управления по работе с КМНС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льга Кутайбергей. – Сегодня мы видим, что традиции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продолжают жить и развиваться, объединяя все больш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ренных этносов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Надеемся, количество спортсменов сахалинского первенства с каждым годом будет только увеличиваться.

Возможность передать опыт гостям и участникам первенства представилась во время мастер-класса по метанию гарпуна, который совместно с членами Федерации по северному многоборью Геннадием Азмуном и Михаилом Лемчиным провела главный судья соревнований, член регионального совета уполномоченны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ья Чайка.

– Мы возрождаем национальный вид спорта, который является основой традиционной хозяй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Многие из них всю жизнь занимаются охотой и рыболовством, и для их успешного ведения необходимо владеть определенными навыками.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е этих умений в ходе соревнований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поддержке хозяй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формирующей стержень развития коренных этносов, – сказала Наталья Чайка.

Камчатская делегация во главе с президентом Федерации северного многоборья Камчатского края Анатолием Кимом поделилась секретами метания тынзы на хорей. Отметив большой потенциал участников северного многоборья Сахалина, опытный наставник не только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 особенности бросковой техники на дальность и точность, но и отработал их со своими подопечными во время практических занятий.

Накал борьбы в первенстве достиг апогея во время заключительных видов соревнований. В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е недюжинную силу и сноровку проявили Богдан Чинков (Ногликский район), Семен Резник (Поронайский район) и Михаил Бакшее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в командном перетягивании каната лучшими стали охинцы.

По завершении четырехдневной спортивной программы в списке «абсолютников» – участников, которые набрали больше всего первых мест в личном зачете – фамилии шести участников из Охинского района и Камчатского края. В младшей группе это Александр Кехан и Анастасия Завьялова, среди девушек и юношей – Данил Фаст и Наталья Макарова, среди юниоров – Антон Евский и Дарья Валева. По мнению ребят, этот результат – во многом заслуга тренеров и тот итог, который мотивирует их к дальнейшим победам. В командном зачете пальма первенства – у спортсменов из Охинского района, серебро у ногликцев, тройку призеров замкнули хозяева соревнований.

– Народы Севера по праву могут гордиться национальными состязаниями, дошедшими до нас из далеких времен. Сегодня многие виды спорта стали частью уник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ведь их происхождение связано с народными легендами, которых великое множество. И каждый из них, словно жемчужину, мы бережем для будущих поколений северных этносов, – отметила ведущий специалист отдела социа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Сахалин Энерджи» Юлия Завьялова.

Первен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национальным видам спорта среди детей КМНС финансируется областны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и компанией «Сахалин Энерджи» – генеральным партнером первенства.

Больше 7 тысяч сахалинских семей с детьми от 3 до 7 лет получили увеличенную ежемесячную выплату

Размер выплаты поменялся из-за повышения уровня прожиточного минимума. Раньше для малоимущих семей с детьми от 3 до 7 лет максимальный размер выплаты составлял 17900 рублей. Теперь 100 процентов от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ожиточного минимума для детей это почти 20 тысяч рублей. С помощью выплаты семьи смогут преодолеть порог бедности и улучшить материальное положение.

– Выплаты заявителям пересчитают, начиная с 1 июня 2022 года. Сумма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дохода составит от 9.895 до 19.791 руб. в месяц на ребенка. Это хорошее подспорье для семейного бюджета. На такую помощь могут рассчитывать порядка 7150 сахалинских семей. Всего в первом полугодии на выплату было направлено почти 60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 рас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льга Орлова.

Ежемесячная выплата на ребенка от 3 до 7 лет назначается, если среднедушевой доход семьи ниже прожиточного минимума – 18.930 руб. Заявителям назначается 50, 75 или 100 % (9.895 руб., 14.842 руб., 19.791 руб.) от

величины прожиточного минимума для ребенка. Размер пособия зависит от того стал ли среднедушевой доход семьи выше уровн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ожиточного минимума. Оформить пособие можно на каждого ребенка в возрасте от 3 до 7 лет включительно.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на выплату можно удаленно через портал «Госуслуги», а также в отделениях центра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ыкупит учебно-тренировочный центр «Восток» в этом году

Благодаря поправкам в региональный бюджет появи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выкупить у собственника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й спортивный объект. Универс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позволит закрыть значительную часть потребности в тренировочных залах.

«Восток» продолжит своё развитие в структурном подразделении центра спортивной подготовки (ЦСП)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подведомствен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ЦСП в учебно-тренировочном центре планируется развитие системы подготовки спортивного резерва и не только.

– «Восток» является уникальным местом с широки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Это проведение мероприятий различного уровня, тренировочных сборов команд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РФ, организация детского отдыха, фитнес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Это целый кластер для развития спорт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 подчеркнул министр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ртём Подшивалов.

По словам министра,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ставил принципиальную задачу – сохранить работу объекта, который уже завоевал популярность среди сахалинских спортсменов-любителей и профессионалов. Исходя из эт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приобретении учебно-тренировочного центра в областную собственность.

Как отметил директор ЦСП Алексей Никонов, площадки «Востока» внесены во Всероссийский центр спортивных объектов, это позволяет принимать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мероприятий регионального и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уровней. На первом этапе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одить более 100 официальн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в год по различным видам спорта.

Кроме того, здесь будут организовываться встречи с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и спортсменами, тренировки и мастер-классы, что даст сахалинским атлетам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опыт и улучшит спортивные результаты.

Важным направлением станет создание на базе «Востока»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адаптивной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для люд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Здесь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тренирово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сборных команд России по адаптив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Продолжатся регулярные занятия, а также отбор и подготовка наиболее одаренных, перспективных ребят для пополнения сборных команд области и страны.

Помимо этого, учебно-тренировочный центр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организации практик и трудоустройству студентов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ниверситета, обучающихся на спортивных тренерах и педагогов.

Продолжит функционировать и детский загородный лагерь, который ежегодно пользуется большим спросом не только у юных сахалинцев, но и ребят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На сегодня уже полностью укомплектованы три смены лагеря – это около 900 детей в возрасте от 8 до 16 лет. Часть стоимости путевок компенсируется родителям за счет бюджета области.

Помимо социальных целей учебно-тренировочный «Восток», ведет коммерческое направление. На территории действует современный фитнес-зал с тренажерами последне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цы более ответственно начали подходить к сортировке отходов

За 6 месяцев 2022 года из сетчатых контейнеров, предназначенных для сортированных отходов, вывезли около 500 тонн. Рекордсменом по сбору остается Южно-Сахалинск. Здесь собрано около 454 тонны. Работа по внедрению раздельного накопления твердых коммунальных отходов проводится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Экология», который реализуетс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Специальными контейнерами оборудованы 6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Южно-Сахалинск, Долинск, Анива, Корсаков, Ноглики и Холмск. В сентябре в этот список добавится и Тымовское. На текущий момент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уже установлено 673 контейнера, из них 524 –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 С каждым днем растет количество контейнеров для сбора сортированных отходов. К концу года мы планируем охватить каждый район Сахалина, а в 2023 году и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Важно, когда жители региона заботятся об экологическом будущем островов и присоединяются к проекту. Мы не намерены останавливаться на достигнутом, расширяем не только точки для сортированных отходов, но и увеличиваем количество пунктов для сбора отработанных батареек, прорабатываем вопрос организации сбора и переработки автомобильных шин, – рас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По сообщениям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ператора,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всех к вопросу сортировки подходят жители Долин-

ска. Сетчатые контейнеры в этом районе наполняютс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равилами сортировки. Отходы, которые не предназначены для переработки, здесь встречаются реже, чем в контейнерах други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Отходы, отсортированные сахалинцами, вывозят отдельные мусоровозы на сортировочные комплексы, расположенные на «Известковом» и полигонах в Корсакове и Ногликах. Там работники разделяют отходы по фракциям. Как только собирается достаточная товарная партия вторсырья, ее отправляют на материк для дальнейшей переработки. С января по июнь 2022 год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 Хабаровск и Екатеринбург на переработку транспортировали 21,7 тонн пластиковых бутылок и 56 тонн картона, отсортированных в Корсакове и Ногликах. Эти материалы получают вторую жизнь.

В регионе продолжают работы по внедрению раздельного накопления отходов. В текущем году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сетчатых контейнеров запланировано более 69 млн. руб. Кроме того, заявк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спешно прошла конкурсный отбор Минприроды России. Так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будет предоставлена субсидия в размере 35,8 млн. руб.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1 685 контейнеров.

За два года предстоит закупить свыше 2500 контейнеров.

Ход строительства жилья и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х объектов проконтролировали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 рамках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заместителю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ю Олонцеву доложили о жилищном строительстве на территор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Задачу повышения доступности жилья для жителе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остав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удалось нарастить объемы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ускорить темпы сдачи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снизить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барьеры.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что застройщики дома в планировочном районе Луговое ГК «Лиго» уже завершили монтаж фасада здания, выполняется внутренняя отделка квартир и ведется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придомовой территории.

Это первая пятиэтажка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озведенная с применением н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Особенностью дома по адресу 2-я Северная является минимальный срок строительства, который, в свою очередь, совершенно не отражается на качестве и сейсмике здания. Возведение дома занимает в среднем 1,5 месяца, а весь цикл – 9 месяцев. Данный объект построен из панельных плит, произведенных на домостроительном комбинате той же компании. Данные панели имеют идеальную поверхность, что при дальнейшей отделке минимизирует «грязные» процессы, тем самым сокращая срок не только стройки дома, но и время отделочных работ.

– Наша компания намерена реализовать большие объемы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социальных объектов. В этом году планируем сдать ряд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физкультурно-оздоровительный комплекс и детскую школу искусств в Аниве. Приступили к реализации крупного проекта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малоэтажного жилого комплекса «Большая полянка» в Дальнем,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в ходе встречи Виктор Румачик, заместитель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ГК «Лиго».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строительная компания приступила к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нового ЖК «Большая полянка». В первой очеред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ся возведение трёх жилых четырехэтажных домов на 205 квартир. Конструкции первого дома планируется возвести уже к началу октября текущего года.

Ещё одна строительная компания «Глобус» ведёт работы по возведению двух домов на 48 и 80 квартир в п.р. Дальнее к ноябрю текущего года. По графику отставаний нет,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строители монтируют фасад здания, ведутся отделочные работы. Внутри уже смонтирован водопровод, канализация, частично электрика. Как заявил застройщик – проблем с поставками материала нет.

Также в ходе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курирующий зампред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сетил строительство пристроя к школе №30, рассчитанного на 550 человек. Данный объект возводит компания «Сфера». Подряд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идет с опережением графика, поэтому Сергей Олонцев поручил пересмотреть сроки возведения и сдать объект к сентябрю 2023 года.

Хотелось бы отметить, что осмотр любого объекта Сергей Олонцев начинает со стенда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го контроля и анализа, который должен присутствовать на каждом строительном объекте.

«Стенд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го контроля и анализа – это ключевая вещь в управлении любым проектом. Здесь видно, в каком состоянии находится объект, какие работы идут с отставанием, какие с опережением. Отражаются проблемы в части поставок материала, оборудования. Отслеживается численность людей на площадке. В системе управления проектами – это ключевая вещь. На Сахалине этому обучают в «Школе Заказчика». Данный ситуационный стенд значительно сокращает время анализа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й площадке: не надо ходить часами на объекте, чтобы понять, на какой стадии находится проблема и как её устранить»,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재외동포재단, 세종학당재단과 함께 온라인 한국어교육 사이트 공동 구축

- 일본, CIS지역 재외동포 대상 온라인 한국어 교육 웹사이트 개발, 7월 5일부터 운영 -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이해영)과 협업을 통해 일본과 CIS지역 동포들을 위한 온라인 한국어 교육 사이트인 'Studykorean with KSI(study.korean.net/ksi)'를 공동 개발했으며, 7월 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그동안 한국어 교육이 취약한 일본과 CIS지역 재외동포 학습자의 특성과 수준에 적합한 교육 사이트가 없어 해당 지역 차세대 동포 교육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양 기관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증가하는 한국어 교육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업사이트를 개발하게 되었다.

'Studykorean with KSI'는 일본과 CIS지역 동포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콘텐츠를 현지어(일본어, 러시아어)로 번역·제공하고 있으며, 재외동포재단이 보유한 다양한 역

사·문화 콘텐츠와 세종학당재단의 온라인 한국어 교육과정(사이버 한국어과정 입문, 초급) 강의 수강 등을 통해 우리 동포들의 한국어 실력 향상과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김성곤 이사장은 "두 기관이 협업하여 만든 한국어 교육 사이트가 마중물이 되어 일본과 CIS 지역 동포사회의 한국어 교육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세종학당재단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양 기관은 2020년 10월 재외동포 차세대 및 외국인 대상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업 사업을 발굴하고 한국어 교육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협력해 오고 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주택관리공단 공공임대주택 사할린영구이주교포, 새터민, 고령층 힐링캠프 실시

코로나 19로 지친 어르신들의 우울증해소와 스트레스 해소

주택관리공단은 국립자연휴양림과 업무협약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거주 사할린 영구 이주 교포, 새터민, 고령층 어르신들과 중미산자연휴양림, 유명산 자연휴양림, 산음자연휴양림 등 숲으로 떠나는 힐링캠프를 최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행사에는 주택관리공단 안산고잔 1, 군자 13, 분당 한솔 7, 하안 6, 수원 정자, 화성태안 6,12 어르신들과 수원 우만 3, 분당 목련 1, 안산고잔 16, 오산운암 6, 산본 주몽 1, 가야 2, 화성태안 8 주거행복원 센터장들이 함께 참여하여 꽃차 마시기, 산가지 나무놀이, 손뼉 치기, 산책하기 등 실시해 코로나 19로 지친 어르신들의 우울증 해소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이 되었다

주택관리공단에서는 오는 가을에도 고령층 어르신들과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주택관리공단 경기지사가 공공임대주택 사할린 영구이주교포, 새터민, 고령층 어르신들에게 힐링캠프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 주택관리공단 경기지사 제공)

[경기신문]

'2022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여름 과정 입학식

국립국제교육원이 주최, 공주대 주관 재외동포 인재 육성 교육과정 '한국이해과정(여름)'에 11개국 65명 입학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김영곤)이 주최하고 공주대학교(총장 원성수)가 주관하는 '2022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의 한국이해과정(여름) 입학식이 7월 1일 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문화원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은 재외동포 학생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과 국제화 마인드 배양을 통해 모국과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차세대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매해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수학준비과정(연2회, 5개월), 한국이해과정(연4회, 2개월), 원격교육과정(연4회, 1개월, 온라인)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여름에 진행되는 한국이해과정(여름)에는 11개국의 65명의 재외동포 학생들이 입학했다. 이들은 8월 25일까지 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문화원에서 전 세계 재외동포 학생들과 함께 한국어, 한국문화·역사 교육과 현장체험학습, 진

로진학교육, 교류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가한다.

이날 입학식에는 국립국제교육원 재외동포 국비유학팀장과 국립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문화원장,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의 대학수학준비과정(봄) 재학생 등 90여명이 참석해 한국이해과정(여름) 교육생의 입학을 축하했다. 입학생 대표로 나선 고영주(과테말라, 18세) 학생은 "작년까지는 원격으로 본 과정을 참여했는데 이번에 직접 한국을 방문해 다양한 국가에서 온 재외동포 학생들과 함께 어울려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기쁘고 설렌다"고 입학 소감을 밝혔다.

'2022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의 한국이해과정·원격교육과정의 겨울 참가자 모집은 오는 8월 2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재외동포신문)

강제징용 21만명 중 일부만 배상? 대위변제 '악마의 디테일'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거론되는 대위변제는 2019년 국회에서 '문희상안'이라는 이름으로 논의되다 성과를 보지 못한 자금 조성안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골조는 비슷하다고 해도 '악마의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구체적 구성이나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정부가 대위변제를 추진할 경우 고비가 될 수 있는 3대 핵심 쟁점을 짚어봤다.

① 대위변제 '대상' 설정

강제징용 피해자는 ①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배상이 확정된 경우 ②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③소송에 나서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 ①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총 14명으로, 2018년 10월(1건)과 11월(2건) 대법원 판결을 통해 각각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현재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인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은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소송과 무관한 전체 강제징용 피해자의 경우 노무현 정부 당시 특별법을 제정해 공식 인정받은 규모만 21만 8639명에 이른다.

대위변제가 추진될 경우 배상 대상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승소한 피해자와 현재 소송을 진행중인 피해자, 즉 '①+②'로 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위변제라는 개념 자체가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채권에 해당하는 배상 권한을 획득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 소식통은 "대위변제시 그 대상은 법적으로 배상 권한을 확보했거나,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로 한정할 수밖에 없다"며 "만일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피해자를 모두 포함한다면 이는 대위변제가 아닌 '포괄적 지원'이 된다는 점에서 근거도, 명분도 부족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 시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의 추가 제기 소송은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 3년이 지났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강제징용과 같은 반인권적 과거사 사건에 대해선 청구권 소멸시효를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② '재원 마련'도 첩첩산중

대위변제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선택지는 ▲정부 예산 ▲한·일 기업 자발적 출연 ▲한·일 국민 성금 등이 있다.

이 중 정부 예산을 투입해 재원을 마련할 경우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한국 측이 대신 이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양국 국민의 성금은 규모를 쉽게 추산하기 어렵단 점에서 이런 방식을 택하더라도 재원 마련의 주축이 아닌 '+α'의 성격을 띠 가능성은 크다. 결국 재원의 상당 부분은 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을 통해 마련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에선 포스코·KT&G·한국도로공사 등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받은 자금으로 수혜를 입은 기업·기관이 자금 출연의 주축이 될 수 있다. 포스코의 경우 2012년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을 위해 100억원 기부를 약속했고, 현재 60억원을 출연해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기업이 주축이 될 경우 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 등 전범 기업들이 출연에 참여할지가 핵심이 될 수 있다. 이들이 대위변제를 위한 재원 마련에 참여할 경우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은 아니지만, '간접 배상'에 나섰다'는 명분이 마련되거나 화해의 길이 열릴 수도 있다. 이외에도 재일동포 사업가나 한국과 긴밀한 사업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 기업 등에서도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출연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소장은 "대위변제를 추진해 자발적 출연금을 조성한다면 일본 정부는 관련 기업들이 기금을 출연하는 걸 막거나 반대하진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다만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이 끝난다는 일본의 입장을 감안했을 때 일본 기업이 징용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이나 이사회가 이를 '배임'으로 해석해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③ 형평성 논란

정부는 앞서 1975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과 지원금을 지급했다. 1975년 당시 박정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 사망자 유족에게 1인당 30만원씩 총 91억원을 보냈다. 노무현 정부였던 2007년엔 이런 보상이 충분치 않았다는 판단 아래 7만2631명의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로금·지원금 명목으로 6184억원을 지급했다.

대위변제 방식을 적용할 경우 대상 설정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 있다. 배상 판결을 받지 않은 피해자들을 지급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정부 차원에서 특정 과거사 피해자에게 세 차례에 걸쳐 지원금·배상금 등의 현금을 지급하는 게 될 수 있어서다. 이는 다른 과거사 및 강제동원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국가 폭력에 대한 정부의 보상을 보충 정책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대위변제가 추진될 경우 강제징용 피해와 동일한 형태의 국가 폭력을 경험한 사할린 동포나 원폭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쟁점을 우선 내부적으로 조정하고 최종적인 해법을 도출하려면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단 의견도 나온다. 어떤 해결방식을 택하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모종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정부가 현인회의와 같은 협의체를 구성해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하면,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자연스럽게 현금화 절차가 동결되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인회의에서 결과물이 마련된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를 상대로 충분한 설명과 설득 작업을 이어가 완결성 있는 해법을 도출한다면 일본을 상대로 제대로 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문화레저센터에 따르면, сахалин 정착 역사를 주제로 한 그림·사진·서적 전시, 미술공예 작품, 글쓰기 활동 교실, 북방 소수민족 원주민 전통공예 활동교실 등이 축제 때 진행될 것이다. 마카로브 구역의 클로롭스키 폭포와 포로나이스크 구역 향토 박물관 견학 투어도 계획되어 있다. 공연장에서는 시 낭송회와 구역 예술단들의 콘서트 등이 진행된다.

이 축제는 문화레저센터와 주 정부의 지원(사회적 보조금)으로 개최된다. 그래서 참가 비용은 모두 무료이다(식비, 교통비, 숙박비).

сахалин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전문 작가 또는 아마추어 작가들은 심사위원과 대중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소개할 수 있다. 주제 발표와 주제 공개 및 일반인의 문어 규범에 대한 작품 대응, 맞춤법과 구두점 사용법, 문장의 깊이와 독창성, 그리고 은유와 비유체계의 통일성을 통해 작품별로 참여자 예비 선정이 진행된다.

주최 측은 축제 참가자 전원에게 상장을 수여할 것이며, 최우수 작품은 행사 결과물로 발간되는 연감 "힘의 장소 - сахалин"에 게재된다.

'미르' 문화레저센터에서는 7월 15일까지 참여 신청을 접수하며 참가 선발은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Сахалинцам предлагаю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фестивале "Озарение"

23-24 июля в Поронайске займутся поиском и продвижением талантливых сахалинских литераторов. Для этого в райцентре впервые проведут межмуниципальный фестиваль "Озарение", который учредил местный культурно-досуговый центр "Мир".

Как сообщает КДЦ, эти дни будут заняты выставками картин, фотографий и книг, посвященных истории з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а, работ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мастер-классами по литературной работе и традиционным ремёслам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Планируются ознакомительные экскурсии на Клоковский водопад в Макаровском районе и по Поронайскому краеведческому музею. На концертной площадке состоятся поэтические чтения и концерт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района.

Фестиваль проводится за счет средств центра и при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ыделившего грант на поддержку проекта как социального. Потому участие в нем (питание, проезд и проживание) — бесплатное.

Свои работы на суд жюри и публики могут представить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и самодельные авторы в возрасте от 18 лет и проживающи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й отбор участников проведут по соответствию работ нормам литературного языка, орфографической и пунктуационной грамотности, по глубине, оригинальности, метафоричности и единству образной системы в подаче материала, по раскрытию темы и общему впечатлению.

Всем участникам фестиваля организаторы сулят дипломы, а лучшие произведения войдут в альманах "Место силы — Сахалин", который издадут по итогам мероприятия. Заявки на участие в КДЦ "Мир" принимают до 15 июля, заочный отбор пройдет до 20 числа.

(са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ООО «Сахалин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тхэквондо» выражает глубокие искренние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родным и близким Алексея Серова в связи с преждевременным уходом из жизни.

Жизнь Алексея была тесно связана с воспитанием детей, он старался формировать и закалять в детях характер сильных духом людей.

Память о нем сохранится в сердцах его учеников.

Пусть душа его покоится с миром.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신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клама



КИНО



ТЕАТР



Ваш портал в мир развлечений!

Вы можете купить билеты



на сайте
bilet.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билет.sakh.com](http://bilet.sakh.com)




КОНЦЕРТЫ



<p><i>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i></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